

지역 건설사 '퇴출 공포' 확산

채권은행, 이달 중 광주·전남 34곳 등 300위권 신용평가 촉각

지역 중견 건설사들이 좌불안석이다. 시공능력 300위권 이내 중견 건설사에 대한 체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가 본격화되면서다.

특히 읊들어 금호산업·남양건설·금광기업 등 광주·전남지역 '빅3' 건설사가 모두 무너지면서 지역 건설업계가 위기감에 휩싸인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구조조정 의지까지 겹쳐 '퇴출 공포'에 떨고 있다.

1일 지역 금융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체권은행들은 이달 말까지 시공능력 300위권 내 중견 건설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마치고 옥석을 가려낸다. 300위권에 들어가는 광주·전남 건설사는 모두 34개사다.

채권단은 이들업체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1, 2차에 걸쳐 실시한다. 1차 평가는 이달 초에 끝나고 2차 평가는 20일까지 마무리된다.

이중 구조조정 대상은 체권단의 금융당국 보고와 2주일간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7월 초에 확정될 전망이다.

체권단은 평가 대상 기업들을 A등급(정상, 80점 이상),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 70~79점), C등급(워크아웃, 60~69점), D등급(법정관리, 60점 미만)으로 분류해 C와 D등급업체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금융권에서는 시공능력 100위권의

건설사 중에서 20곳을 제외한 상당수 건설사가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91개 건설사에 대한 1차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남양건설, 금광기업 등이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부실이 드러나면서 이번 평가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패스트트랙(신속 자금지원 프로그램)과 건설사 지원 방안인 대주단 프로그램이 각각 6월과 8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유동성이 나빠지는 건설사가 속출할 것이다

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사들의 재무제표와 자금 흐름 등을 들여다본 결과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퇴출 공포'가 시시각각 현실화되면서 지역 건설업계는 다음 순서가 누구나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특별히 높아진 지역 건설업체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건설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대부분 토지인데 건설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이것이 뒤에 유동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삼성전자 '세탁기 수축포장'

미래패키징 신기술 최우수상

삼성전자의 '세탁기 수축포장'(사진)이 1일 고양 킨텍스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제4회 미래패키징 신기술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인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받았다.

세탁기 포장재를 기존 종이박스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LDPE 필름으로 바꾼 이 포장법은 기존의 가전제품 포장보다 중량을 44% 줄이고 포장을 뜯지 않고도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친환경 그린 패키징' 기술 확보로 지구촌 환경 보호와 함께 생활가전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고온음료용 종이컵에 이종 구조를 채택해 보온성을 높이면서 골판지 사용으로 원가를 줄이고 친환경성을 높인 삼보에이豌의 '보온용 엘보 이종컵 및 멀티 플로우용 종이 뚜껑'도 최우수상 수상작으로 뽑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급가속 걱정 마세요"

기아全차종에 '스마트 페달' 장착

현대기아자동차는 오는 2011년까지 자사에서 생산하는 모든 승용차량에 대해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BOS)을 장착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스마트 페달이라고 불리는 BOS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동시에 밟았을 때 엔진의 동력을 차단해 브레이크가 우선 작동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기계식 제어시스템 차량은 가속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바로 제어가 되지만 전자식의 경우 가속 상태가 계속 유지될 우려가 제기됐었다. /연합뉴스

특정 생활정보신문에 부동산 광고 게재 강요

공정위, 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는 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이하 협회)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생활정보신문에만 부동산 관련 광고를 내도록 강요한 것은 부당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협회의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인 만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약을 체결한 뒤 구성사업자들에게 상록수신문에만 부동산 중개 관련 광고를 내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협회의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인 만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기능 인력 채용박람회

광주·전남중소기업청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임충식)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기능 인력의 안정적 취업 지원을 위해 3일 오후 2시 광주시 광산구 하남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기능인력 채

용박람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지역 우량 중소기업 20곳이 참여해 15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광주·전남지역 전문계고·전문대 출신의 취업지원을 위해 직업심리 검사와 무료 증명사진 촬영 등을 실시하다. 또 1인 창조기업 및 창업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을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FAX) 383-5221 월 011-809-5221

금당 공인중개사

T. 222-4994, 010-2632-5659, 011-782-6266

(동구 금남로 5가 우리은행 4거리 1층)

토지매매

- 병원건물, 삼무지구 중심지, 대지 1010㎡(305평) 건폐 2996㎡(906평) 공시지가 27억 3천 평도 41억
- 동구 6차선도로와 3차선 도로 코너 대지 1948㎡(598평) 건폐 2109㎡(637평) 공시지가 27억 3천 평도 25억
- 신안동 상업지 310㎡(94평) 공시지가 3억원 평도 2억4천
- 미동자연주택지, 대지 574㎡(169평) 공시지가 52억 평도 5억5천
- 대지, 두암동 소방도로집 275㎡(83평) 1억5백
- 충장로 5가 5번 건물 대지 33평과 165 평시지가 3억 평도 5억
- 요양시설적합 한평군 월야면 토지 11139㎡(3370평) 건물 1442평 경계감정가 18억 평도 6억
- 금남로 청암길고 뒤 주택 영업용 적합 공시가 평도 8400만 원
- 순천시 대지 170 건폐 243 평시지가 992 평도 5억8천
- 부동 6차선 도로 대지 55 건폐 206평 6층 건물 5억
- 화정동 6차선 도로 대지 136 건폐 173 대출 3억 평도 6억5천

매도·교환

- 4층 상가주택 신안동 4차선 도로변 대지 184㎡(56평) 건폐 461㎡(136평) 대출 1억 평도 2억5천
- 전원주택지 부근 196평 시찰도 적합800만원
- 목욕탕·모텔·상가 매입도 대지 643㎡(195평) 건폐 941평 전세 2억3천 원 670 대출 10억 평도 1억5천5백
- 내지 140평 허락 시가리 월곡동 주공 아파트 입구 준주거지 472㎡(142평) 공시가 4억3천 평도 5억2천
- 화순 도곡면 관리지역 384평 교환기능 3억2천
- 하남2지구 대지 62평과 임곡동 준주거지 265평을 합하여 건물과 교환기능 5억3천
- 매월동 서광주동 부근 2314㎡(702평) 8억2천
- 광산구 우신동 2220평 하지장동 다용도 22억
- 광산구 우신동 상업지역 187평 공시가 5억7천 평도 6억2천
- 송정리 소나동 지구단위지역 2종주거지 403평 4억
- 복장, 화순군 사광부근 대지 288 건폐 32평 8500만원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려겠습니다.

★ 아무데나 전화 주십시오★

주택·아파트·임대

- 아파트 연세 현대 201㎡ 대출 1억 교환 가능 1억5천
- 주택 학군 주변 소재지 387㎡(101평) 2400만원
- 금남로 5가 사거리 총당 29평 건물의 2층, 3층, 4층을 분리하거나 합하여 병·의원 임대, 조건은 협의함.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생산된 스포티지와 쏘울 등 수출용 차량들이 1일 목포 신항에서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기아 '신차 효과' 쾌속 질주

5월 스포티지R·K5·K7 등 내수·수출 총 16만대 판매

기아자동차가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스포티지R 등 신차 효과에 힘입어 흐름 질주하고 있다.

기아차는 지난 5월 내수 4만14대, 수출 12만2116대 등 총 16만2130대를 판매했다고 1일 밝혔다. 내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5%, 수출은 46.4% 증가해 전체적으로 33.3% 늘어났다.

내수에서는 스포티지R과 K5, K7, 쏘렌토R 등 신차들의 판매 호조로 전달인 4월보다도 3.9% 증가했다.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판된 스포티지R은 한 달간 4859대 판매, 현대차 투싼 ix를 제치고 SUV부문 1위에 등극했다. 승용차 내수 판매에서

도 '톱5'에 올랐다.

스포티지R 외에 기아차는 모닝(8321대·2위), 포르테(3601대·9위), K5(3552대·10위) 등 4개가 '톱10'에 진입시켰다. 특히 K5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판매된 실적만으로 '톱10'에 오르는 등 돌풍을 일으켰다.

지난 4월부터 계약을 받기 시작해 두 달만에 계약대수가 2만대를 돌파했다. 준대형 K7도 3269대 판매해 K 시리즈의 인기도 내수판매 실적을 견인했다.

수출은 국내생산분이 6만9228대로 지난해 동기 대비 33.0% 증가했으며, 해외생산분은 미국 조지아주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서 67.7% 늘어난 5만 2888대를 판매했다.

해외에서도 스포티지R, 쏘렌토R 등 신차들의 판매 실적이 두드러졌다.

5월부터 본격 수출이 시작된 신차 스포티지R은 5월 한 달간 5127대가 팔렸으며, 쏘렌토R도 조지아 공장 생산분 1만2000대를 포함해 총 1만 7094대를 기록했다.

5월까지 연간 누계 판매실적은 내수 18만3758대, 수출 62만8112대 등 총 81만1870대로 지난해보다 55.9% 증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011년형 '쏘울' 나왔다

기아차 광주공장 안전·편의성 보강

